

정부, 미국 수입규제 해결 총력전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사 대응 ... 규제대응반 가동으로 적극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25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에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개별기업 차원의 대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직접 조율 및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3년 6월 현재 129건에 달했고 제소는 2012년 25건, 2013년 상반기 14건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응반을 구성해 정보입수, 대응논리 마련, 통상협력 의제화와 동시에 중소기업 교육 등의 지원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산업부는 2013년 6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폴리실리콘(Polysilicone) 반덤핑 조사 관세율을 크게 낮추어 국내기업의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산업부는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의 주재로 7월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무역협회, 코트라,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5>